수출 中企 '유해물질 규제' 비상

EU이어 中도 3월부터 납·수은 등 사용 제한

전기·전자제품 90%이상 규제 대상… 대책 시급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갖가지 규제장치를 만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오는 3월부터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를 시행, 수입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

특히 2005년 대 중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액 238억불 가운데 91%(217억불)가 규제대상 품목이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China RoHS는 중국내로 수입되는 1천400여종의 전자제품·부품에 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BDE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 하반기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을 발효, 또 국내 기업들의 목줄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강제인증'으로 풀이되는 CCC는 중국내에서 생산·유통·제조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을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RoHS를 발동한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REACH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REACH는 EU역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들어오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rization)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REACH가 시행되면 화학조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등 여천산업단지 10여개 입주기업들은 물론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등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업체들도 REACH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광수 시험연구과장은 "연간 1t 이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물질의 경우 시장유통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중국과 EU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함께 RoHS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같은 규제는 우리 업계에게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와 공정개선 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 사전대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RoHS(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법)=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의 약어로 전기·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가맹 각국의 법률의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보호와 환경부하의 삭감(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삼성생명 보장자산 바로알기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는 11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임직원과 컨설턴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 '보장자산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올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의원·학원 등 533명 집중 관리

광주 국세청, 성실신고 유도

광주지방국세청이 병의원, 입시학원 등 소득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면세사업자 500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533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신고 대상자는 6만명으로,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들 신고 대상자중 의료업 414명, 학원업 99명, 기타 20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비보험 수입비율이나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고액 입시학원 등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수입액 신고 누락여부를 정밀 점검하겠다"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입주민 주거 복지에 최선 다할 것"

이철헌 신임 주공 광주·전남본부장

"주거복지전문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임 이철헌(55)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주택의 양적 공급은 물론이고,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문화, 복지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올해는 광주·전남 11개 지구에 모두 8천여가구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4개 지구 3천 600여 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담양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78년 주공에 입사, 강원지역본부 사업계획부장, 신도시개발처 신도시개발팀장, 경기지역본부 사업처장 등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지난해 시가총액

25개사 3조4천680억원

2005년보다 2,260억원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늘어난 반면 외국인 보유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및 외국인 보유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5개사(유가증권 15개사, 코스닥 10개사)의 시가총액은 3조4천680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7%인 2천26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 상장사들의 외국인 보유액은 총 3천960억원으로 전년대비 35.1%인 2천140억원이나 급감했다.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는 시가총액이 7% 증가했고 외국인 보유액은 1.2% 늘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는 금호산업(1천828억원),폴리플러스(1천579억원),엠앤에스(947억원) 순이었고 감소한 회사는 금호타이어(2천275억원),화인케미칼(285억원), 로케트전기(262억원) 순이었다.

또 외국인 보유액 증가 상위 3개사는 광주신세계(184억원),조선내화(78억원),화천기공(17억원)이었고 하위 3개사는 금호산업(1천256억원),금호타이어(787억원),셀런(244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화인케미칼(27.4%)이었고 금호타이어(25.9%), 광주신세계(11%)가 뒤를 이었다.

지역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액이 급감한 원인은 외국인들이 환율하락 및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부진 우려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대체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주식을 내다 판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지역 기업들이 매도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농교류 대부분 일회성"

삼성경제연 "농촌돕기 차원보다 공동번영 창출해야"

현재 도시와 농촌간 교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거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도농교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가 미흡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농교류가 현재의 농촌돕기 차원의 일회성 운동이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은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국가는 도농격차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2003년 7월부터 농협과 경제 5단체 등의 주관으로 시작된 농촌사랑운동과 같이 현재의 도농교류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외형에 비해 여러가지 개선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질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도농교류는 현재의 일회성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도농교류는 현재의 농촌돕기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동 번영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도시민은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촌의 교류기반 정비 ▲농촌의 교류역량 높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

생산기술연 광주연구센터 동력분배장치 20만불 수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김형모 박사가 최근 미국 파워트레인 사로부터 자동차의 동력분배장치에 적용될 인벨로핑 헬리컬기어 시스템 개발과제로 20만달러를 수탁했다.

파워트레인사는 BMW·다임러 크라이슬러·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에 동력전달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수탁한 개발과제는 4륜구동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RV(레저용 차량)·소형트럭용 동력분배장치로, 체인을 이용한 기존 제품과는 달리 기어로 동력을 분배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

농협 전남본부, 학자금 대출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일부터 2007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대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대상학생은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 접속,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입생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친권자가 없는 학생은 농협을 직접 방문해 창구대출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